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토론 영상을 보고

토론 1.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요?	2
토론 2.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고요?	16
토론 3. 권리와 탈시설이 무슨 상관인가요?	19
토론 4. 좋은 시설 안 되더라고요?	23
토론 5. 이런 탈시설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24
토론 6. 무엇을 탈시설이라 하시는지요?	26
토론 7.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인가요?	30
토론 8. 탈시설 왜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33
토론 9. 탈시설이 이런 건가요?	35
토론 10. 이러자고 탈시설을?	38

토론 1.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11:33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바뀔까? 시설거주인과 자립한(재가)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의 차이

- 집단서비스(직원 1인이 4명 이상 지원) → 개인별서비스
- 주택(주거공간) 점유권 NO → YES
- 하나의 서비스공급자
→ 이용서비스마다 공급자의 선택
- 서비스의 권한(정부는 지원금을 누구에게 주나) 공급자중심 → 소비자 중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시설거주인의 일과 및 규율 획일화 → 개인마다 다른 하루일과
- 시설 1호실 당 평균입소인 4.7인
→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선택권

먼저 용어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이 여섯 가지 차이가 과연 탈시설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1. 시설 거주인과 재가 장애인?

시설 주택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각 입주자의 집입니다. 성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시설 주택에 있음도 ‘재가(在家)’라는 말이고 시설 주택에 사는 장애인도 재가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므로 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따위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대비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거주인과 자립한 장애인, 이런 대비는 더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립은 사는 곳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어 2. 입소인?

수용소라면 몰라도 주택에 사는 사람을 ‘입소인’이라 하시니 좀 어색합니다. 주택은 입주하는 곳이고 거주하는 곳이지 입소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차이 1. 집단 서비스 (직원 1인이 4명 이상 지원) → 개인별 서비스

1) 이것은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하는 차이가 아닌가요? 어디에 살든 지원 인력을 동일하게 배치하면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2) 일반 주택에 살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설 주택에 살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탈시설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별해도 괜찮을까요?

3) 시설 주택 입주자는 직원 1명이 4명 이상 지원하니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는 개인별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원 인력을 더 배치해서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일 아닌가요? 개인별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 탈시설해야 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개인별 서비스는 탈시설 여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원 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원해 줄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개인별 서비스 제공 여부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원 인력을 차등 배치하는 데서 생기는 차이일 뿐입니다.

차이 2. 주택(주거공간) 점유권 NO → YES

1)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주거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시설 주택은 지원 기관과 계약하고 적법하게 입주한 각 입주자의 주거공간입니다. 시설 주택의 방실은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공간입니다.

시설 주택이 어디에 있든 규모나 형태가 어떠하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에게 점유권이 있는 각 입주자의 주거공간입니다. 시설 주택을 누가 어떻게 마련했든, 누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든, 각 입주자에게 점유권이 있습니다.

2) 탈시설하면 점유권이 있는데, 점유권을 보장하는데, 탈시설하지 않으면 점유권이 없다?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설 주택 입주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차별해도 괜찮을까요?

주거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가 없는가, 점유권을 보장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 하심은 시설에서는 점유권이 없음이,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음이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애인이든 짝꿍이든 누군가가 드나들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다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의 점유권이 있고 없음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인지요?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주거공간에 대해 이런 개념의 점유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주거공간의 점유권이 없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주거공간의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도 주거공간의 점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일 아닌가요? 주거공간의 점유권이 없으니 탈시설해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거니와 설령 전제가 사실이라 해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주거공간의 점유권은 탈시설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주거공간의 점유권은 탈시설해야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¹⁾ 주거공간의 점유권 유무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1) 점유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a. 법률용어사전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민법 제192~209조).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 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점유권은 소유권(所有權)이나 임차권(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

예를 들면 시계를 절도한 자는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b. 두산백과

점유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오직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차이 3.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 → 이용 서비스마다 공급자의 선택

1) 이것은 탈시설 여부로써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시설에 산다고 어느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탈시설한다고 서비스마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발제 영상에서 정선옥 님을 지원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부모교육 기관, 미용 서비스 업체, 신앙생활 기관, 평생학습 기관, 취미활동 기관, 모두 당사자가 선택했습니다.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이렇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비되었거나 심하게 경직되었거나 도전행동이 심한 사람, 지적 기능이나 의사소통 방식이 여느 사람과 사뭇 다른 사람, 그래서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에서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몇 날 며칠이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밖에서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어떻습니까?

2) 일반 주택에 살면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해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다면,

일반 주택에 살면 다양한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해서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이는 시설 입주자에 대한 차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탈시설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별해도 될까요?

이것이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고 하심은

시설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공급자에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3)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라고 해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가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방식을 바꾸자고 할 일 아닌가요?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니 탈시설해야 한다?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서비스 공급자의 다변화, 서비스 공급자의 선택은 탈시설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탈시설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 4. 서비스의 권한 : 공급자 중심 → 소비자 중심

1) 이것도 탈시설 여부로써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시설 기관이라고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이라고 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2)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이 받는 서비스는 소비자 중심인데 시설 주택에 사는 사람이 받는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라면, 그렇다면 이는 시설 입주자에 대한 차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탈시설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별해도 될까요?

서비스의 권한이 공급자 중심인가 소비자 중심인가, 이것이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고 하심은, 시설에서는 공급자 중심인 게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일까요?²⁾

3)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라면,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할 일 아닌가요?

이 문제로 탈시설을 이야기하는 건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는 탈시설과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탈시설로 인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비스의 소비자 중심 여부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2) 16:15 “외국에서의 변화는 꼭 탈시설정책이 아니어도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급자 위주의 어떤 운영을 해 왔던 것을 소비자에게 권한을 좀 넘기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꼭 시설 탈시설의 논쟁을 넘어서 우리 복지 변화 발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좀 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시설 탈시설 논쟁을 넘어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설에서든 시설 밖에서든,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이것이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이 5. 시설 거주인의 일과 및 규율 획일화 → 개인마다 다른 하루 일과

1) 이것도 탈시설 여부로써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2) 시설 주택 입주자의 일과가 획일적이라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의 일과를 저마다 각각 자율적으로 하게, 그렇게 지원하자고 할 일 아닌가요?

일과가 획일적이니 탈시설해야 한다는 건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개인마다 다른 일과는 탈시설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탈시설과 상관 없습니다. 일과가 획일적인가 개인마다 다른가, 이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 획일적 일과는 시설의 구조 때문이다?

16:44 “시설 거주인의 일과가 어떤 시설은 ‘우리 시설은 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썽요, 제가 간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두 개 시설에 100명쯤 안 되게 이제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8시에 출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그 전까지 끝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상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그것은 운영사업자가 뭐 못해서 직원들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사업자가 뭐 못해서 직원들이 뭐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떤 구조를 말씀하시는지요? 운영사업자가 잘해도 어쩔 수 없고 직원들이 잘해도 어쩔 수 없는 그 구조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법인이 어떻게 운영하든 직원들이 어떻게 지원하든 그 구조 때문에 입주자의 일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시설에서는 입주자마다 일과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사업자의 운영 방식이나 직원들의 지원 방식에 상관없이 시설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시설의 구조 때문에 입주자들의 일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서는 입주자마다 일과가 다르고 선생님께서 간여하시는 시설에서는 입주자의 일과가 거의 동일하다? 입주자의 일과는 시설의 구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 입주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양립할 수 없는 설명 아닌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구조 때문에 일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 일과가 입주자마다 다를 수 있다?

차이 6. 시설 1호실 당 평균 입소인 4.7인 →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선택권

1) 호실 당 몇 명이 거주함이 좋은가는 지원 수요와 지원 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탈시설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2)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을 탈시설한 사람에게는 주는데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임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탈시설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별해도 될까요?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의 유무를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이라 하심은, 시설에서는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이 없는 게 당연하다는 뜻일까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3)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이 없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 입주자에게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할 일 아닌가요?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이 없으니 탈시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 유무는 탈시설과 상관없습니다.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 제공 여부에 달린 문제입니다. 탈시설 여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 유무는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개별화된 거주공간과 룸메이트 선택권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차이일 뿐입니다.

종합

1) 탈시설 전과 후의 차이를 위와 같이 여섯 가지로 열거하셨는데 여섯 가지 모두, 탈시설 여부로써 생기는 차이가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차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생길 수 있는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시설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2)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용인 내지 방조하는 주장이라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용인 내지 방조하시겠다는 뜻이 없다 해도, 논리적으로는 그런 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지원하자,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자, 단, 탈시설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탈시설하지 않으면 차별받아도 어쩔 수 없다. 차별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3) 이리므로 탈시설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려면, 시설 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차이, 탈시설의 본질로 인한 차이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같은 영상 19분 57초쯤에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와 설명이 나오는데, 민망하고 슬프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경한 발달장애인, 여성으로 아동기에 시설로 입소된 A씨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했으며 시설의 위치상 개인외출 불가해서 시설이 제공하는 외출 외에는 시설안에서 생활함.
20세가 넘으면서 지원주택으로 자립하여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월 120시간, 피플센터에서 일자리 참여, 개인주택에서 자유로운 외출 및 생활



중한 발달장애인, 남성으로 가족의 의해 시설로 입소된 B씨는 40세 후반까지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며, 혼자 외출이 불가하고, 소리와 외부반응에 민감하여 시설안에서 생활할때 다른 거주인의 소리, 자극을 매우 싫어함.
지원주택으로 자립한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360시간, 권리중심형 일자리참여, 야간에는 주거코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

1. 하루일과를 자기가 결정하고,
2. 자신이 선호하는 개인일정에 따라 생활하고,
3.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
4. 타인을 방해받지 않는 '나의 집'

1. 하루 일과를 자기가 결정하고,
2. 자신이 선호하는 개인 일정에 따라 생활하고,
3.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
4.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나의 집'

이런 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살게 도움 일이지 탈시설해야 한다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최중증 발달 및 와상장애인, 남성으로 장애아동시설을 거쳐 중증요양시설에서 생활한 C씨. 시설에 생활할 때는 스스로 콧줄을 건드리고 뺨다는 이유로 묶여 있거나 팔에 보조기 착용하여 팔을 굽히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최중증와상이라는 이유로 외출불가, 자기방 안에서 누워서만 생활.

지원주택으로 자립후 24시간 가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개인생활가능 팔을 묶는 등의 불필요한 통제가 없고, 일1회 산책 및 심리운동기법을 통한 감각 및 의사소통활성화 최중증 발달 및 와상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여성 D씨. C씨와 유사한 생활을 하였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지원주택으로 자립, C씨와 같이 24시간지원이 필요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시비추가 특례조항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주거코치서비스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D씨 옆에 전담으로 24시간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D씨와 대화, 마사지, 외출, 여행, 건강관리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이뤄짐.



1. 본인 옆에 본인을 전담해주는 지원자가 상주하며 대화하고,
2. 안전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통제가 없고,
3. 최중증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았던 외출, 여행 등이 자유로움.

1. 본인 옆에 본인을 전담해 주는 지원자가 상주하며 대화하고,
2. 안전을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통제가 없고,
3. 최중증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았던 외출, 여행 등이 자유로움

이런 게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살게 도울 일이지 탈시설해야 한다 할 일은 아니잖습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탈시설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경한 발달장애인, 여성은 시설의 위치상 개인외출 불가해서 시설이 제공하는 외출 외에는 시설 안에서 생활했고, 중한 발달장애인, 남성 역시 혼자 외출이 불가하여 시설 안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최중증 발달 및 와상 장애인, 남성은 묶여 있거나 팔에 보조기를 착용하여 팔을 굽히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외출 불가, 자기 방에서 누워서만 생활했고, 최중증 발달 및 와상 장애인, 노인 여성도 이와 유사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프리웰이 운영해 온 시설 아닌가요? 2013년부터 장애아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프리웰의 대표 이사를 맡아 왔는데, 선생님 그 대표 이사이신데, 그 동안 이렇게 운영했단 말입니까?

1. 입주자의 일과를 기관이 결정하고
2. 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생활하게 하고³⁾
3. 구직과 직장생활을 지원하지 않고
4. 타인의 방해를 방치한 채로

1. 누군가 옆에 있어 대화할 사람을 주선하지 않고
2. 불필요하게 통제하며
3. 외출, 여행을 지원하지 않고...

정녕 이렇게 해 왔단 말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도대체 그 동안 어떻게 운영했기에 탈시설 전과 후의 삶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3) 16:51 “제가 간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두 개 시설에 100명쯤 안 되게 이제 지금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하루 일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8시에 출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 맞춰서 저녁 식사를 그 전까지 끝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 2.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9:49 ~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다 할지라도 시설화 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환경이라고 볼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1.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정부가 그러던가요? 시설 운영자나 사회사업가가 그러던가요? 장애
인복지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계
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장애인이라고 다 시설 주택에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등록 장
애인 300만 명 거의 다 일반 주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 명 중에 3만 명이 시설 주택에 사는데, 현실은 이러한데, 마치 300만 장애인이 모두 또는 대부분 시설에 살고 있더라도 하는 것처럼 "장애인이란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이렇게 물으시다니요?

현실을 왜곡하는 말 아닌가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장애인은 모두/대부분 시설에 살고 있는가 보다.' 하지 않겠습니까?⁴⁾

2. 장애인이라서 시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딸려 있는 주택, 시설 주택에 사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있더라도, 일반 주택에 살면서 받는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서, 더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자신의 삶과 사람살이를 잘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기관이 딸린 시설 주택에 살기도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시설에 살거나 시설에 사는 편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설에 사는 것이지, 장애인이라서 시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겠다거나 그나마 낫겠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시설에 사는 것이지, 장애인이라서 시설에 사는 게 아닙니다.

4)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소개 영상과 소개 글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탈시설운동은 장애인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고자 하는 운동” 이고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활동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깨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장애인이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 이런 통념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야 하고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통념이 있나요? 통념이 이러한가요?

3. 장애인은 시설에 살면 안 됩니까?

1) 장애인이든 아니든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래서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시설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면, 장애인이라도 그런 시설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적으로 지원해 줄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시설 기관이 사람답게 살게, 사람 사는 것같이 살게, 입주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잘 지원한다면,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전담 지원하는 시설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면, 장애인이라도 그런 시설 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장애인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고 거주하지 못하게 해도 될까요? 그래야 할까요?

2) 시설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하고, 시설 주택에서 나가라 한답니다.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이렇게 제한해도 될까요? 장애인이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도 될까요?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시설 주택에 거주할 자유, 시설 주택으로 이전할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리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로써 제한하는 겁니까?

토론 3. 권리와 탈시설이 무슨 상관인가요?

1. 더숨99지원센터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1:54~

“사회복지가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옥 씨의 권리, 나의 권리가 모두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만큼 다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줄을 잘 서서 어느 시설에 가면 이런 삶, 어느 시설에 가면 저런 삶, 어딜 가면 아주 더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탈시설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해 왔습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일보다는 각 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탈시설 운동을 했습니다.”

1) 권리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과 탈시설, 둘 사이에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고 탈시설하면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 주택에 거주하면 권리가 없고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면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권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선옥 씨의 권리, 나의 권리가 모두 같아야 한다.” 하신 말씀처럼,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의 권리와 시설 주택에 사는 사람의 권리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줄을 잘 서서 어느 시설에 가면 이런 삶, 어느 시설에 가면 저런 삶, 어딜 가면 아주 더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하신 말씀처럼,

탈시설하면 이런 삶, 탈시설하지 않으면 저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2)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서, 탈시설 운동이라니 뜬금 없어 보입니다.

①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설에 살아도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자는 운동을 하실 것 같은데, 어디에 있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시설 운동을 하신다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②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탈시설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

'장애인도 권리를 누려야 한다, 단, 시설 주택에서 퇴거하면?'

탈시설하면 권리를 보장하고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2. 더솜99지원센터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25:25~

“제 포지션은 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누리게 할 건가에 있다.

어느 공급자에 상관없이 그 권리가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1) 포지션이 모두가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과 탈시설이 무슨 상관입니까? 공급자에 상관없이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탈시설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데, 탈시설 여부에 따라 차별하겠나? 탈시설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리게 하지 않겠나,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게 하지 않겠나? 설마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2) 모두가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포지션이 있다면, 공급자에 상관없이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시설 주택에 거주하든 일반 주택에 거주하든, 시설 기관의 지원을 받든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든,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게 돕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종합 토론 영상](#) 7:41~

“탈시설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제공해야 될 주거 서비스라든지 사회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내용을 바라보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구요.”

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게 하자, 어디로 가든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자.

선생님의 이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속한 조직 ‘프리웰 지원주택 센터’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설 주택으로 가든지 일반 주택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보편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2) 관점

“이런 측면에서 좀 내용을 바라보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든 보편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탈시설을 바라보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사람답게 살고 사람 사는 것같이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바라보고 토론하면 더 좋겠습니다.

토론 4. 좋은 시설 안 되더라고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3:26~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살 곳과 서비스를 잘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해 보셨을 텐데,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 하신 일들의 기획, 실행,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문서를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 좋은 시설?

좋은 시설이란 어떤 시설인지 실무에 당도록 구체화하셨는지요? 좋은 시설의 실체와 실현 방법을 정리한 자료, 실천 안내서 같은 게 있었는지요? 좋은 시설의 실상을 실무에 당도록 구체화하고 그 실현 방법을 안내했어야 그렇게 만들어 보든가 말든가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3. 안 되더라고요?

1)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못 만들었고 프리월드 산하 시설에서 못했으니 누가 어떻게 해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비약 아닌가요?

2) 안 된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할 것이 모호했던 건 아닌지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되게 할 방법을 모르셨던 건 아닌지요? 안 된 것이 아니라, 변변히 해 본 것이 없었던 건 아닌지요? 시도를 아주 안 한 건 아니라도 이렇다 할 시도는 안 한 게 아닌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시설은 누가 어떻게 해도 안 돼.” 감히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토론 5. 이런 탈시설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5:26~

**“나는 늙어서 내 집, 나의 동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친숙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SBS 뉴스 2019.10.27일자 - 스웨덴과 한국의 노인복지
살던 집에서 '맞춤 서비스'...노인복지, 스웨덴살던 집에서 '맞춤 서비스'...노인복지, 스웨

남우현 기자 bunett@sbs.co.kr | 작성 2019.10.27 21:15 | 수정 2019.10.27 21:14 | 조회 2281 | 남우현 기자 bunett@sbs.co.kr | 작성 2019.10.27 21:15 | 수정 2019.10.27 21:14 | 조회 2281

재가 서비스 비교	
스웨덴 1일 다회 방문 맞춤형 서비스	한국 1일 1회 장시간 방문

스웨덴 요양보조사, 하루 최대 8회까지 방문.

“나는 늙어서 내 집, 나의 동네,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친숙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시설 기관이, 그 시설을 맡아 운영해 온 법인이,

시설 입주자를 '내 동네, 내가 살던 곳' 으로부터 똑 떼어서 법인의 동네, 법인이 속한 곳으로 집단 이주시킨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를 친숙한 사람들로부터 똑 떼어서 아는 사람 없는 곳, 낯선 곳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입주자에게 '내 동네'라고 할 만한 동네가 없었고, '친숙한 사람들'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동안 '내 동네, 친숙한 사람들'이 있게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더 나쁜 일이지요.

2019년 겨울에 경기도 김포에서 서울의 장안동, 오류동, 신정·신월동으로 입주자 32명을 집단 이주시킨 일, 2021년 봄에 시설을 폐쇄하면서 나머지 입주자들을 하릴없이 나가게 한 일,

각각의 당사자가, 당사자와 그 둘레 사람이, 이사하게 돕지 않고 기관이 공동모금회 돈을 받아 입주자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일,

그 곳에서 살아오는 동안 정든 이웃, 고마운 사람, 둘레 사람에게 작별 인사도 하게 돕지 않고 그냥 똑 떼어서 이주시킨 일,

입주자가 정붙이고 사는 지역사회가 있게, 곧 입주자가 '우리 동네'라고 여기는 곳과 친하게 어울리는 둘레 사람이 있게, 떠나기 싫을 만큼 정든 곳 정든 이웃이 있게, 이렇게 지원하지 않았거나,

입주자 나름대로 정붙이고 살아온 지역사회가 있었는데 입주자를 그 지역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똑 떼어서, 법인의 지역사회로, 공급자 중심으로, 집단 이주시킨

2019년 겨울의 그 일, 2021년 봄의 그 일...

그 일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토론 6. 무엇을 탈시설이라 하시는지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9:49 ~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그룹홈이나
가정이다 할지라도 시설화 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제목은 “탈시설 왜 해야 하나?”인데, 본문에는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무슨 관계일까 의아했습니다.

제목에 “탈시설 왜 해야 하나?” 했으니, 본문에 제시한 것은 당연히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래서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님’ 이것이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하시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설명을 하셨습니다.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탈시설의 '개념'이 이렇다는 겁니다. UN과 국제사회는 이것을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거주시설이든 가정이든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으니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본문을 두고 설명하기를,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탈시설화’라고 해야 할 텐데 ‘탈시설’이라고 한다?

‘거주시설이든 가정이든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탈시설이라고 했다면 탈가정이라고도 했을 텐데…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장애인 탈가정 정책 가이드라인’도 내놓았어야 할 텐데…

탈시설 운동뿐 아니라 탈가정 운동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UN이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은, 시설화된 환경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UN이 이야기하고 있는 탈시설은, 시설화된 환경을 없애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시설화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UN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예들을 설명하셨습니다.

UN 탈시설정책 가이드라인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 시설화된 환경 (institutionalized settings)의 요소

- 타인과의 지원 공유(집합적 지원)
- 지원인에 대한 선택권 부재 혹은 제한
-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의 고립과 분리
- 일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 부족
- 동거인에 대한 선택권 부족
-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관계없는 경직된 일상
- 특정한 통제 하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집단 활동
- 서비스 제공에서의 부성주의적 접근
- 생활 방식에 대한 감독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런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게 탈시설이라고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UN은, 국제사회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것이 탈시설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타인과의 지원 공유(집합적 지원), 지원인에 대한 선택권 부재 혹은 제한,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로부터의 고립과 분리, 일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 부족, 동거인에 대한 선택권 부족, 개인의 의지 및 선호와 관계없는 경직된 일상, 특정한 통제 하에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인 집단 활동...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 탈시설이라고, UN과 국제사회가 탈시설을 이렇게 정의했다는 말씀입니까? 탈시설화를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것이 ‘탈시설’이라면 ‘탈시설화’는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UN과 국제사회가 이것이 ‘탈시설’이라고 했다는 그 원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도 탈시설이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것’이라고, 또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없애는 것이 ‘탈시설’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런 개념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지요? 이 슬라이드 앞뒤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무수히 사용하셨는데, 그 탈시설들이 모두 이런 개념의 탈시설인가요?

아니라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쓰시는지요? 무엇을 탈시설이라 하시는지요?

선생님의 토론 영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탈시설 개념, 이 두 장의 슬라이드 외에 나머지 슬라이드들을 설명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쓰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 또는 ‘기존 시설을 없애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무엇을 가리켜 탈시설이라 하시는지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탈시설 개념을 온전한 문장으로 똑떨어지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론 7.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인가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강정배 센터장 토론 영상](#)

1:54 결국은 거주시설 중심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주거를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7:29 이제는 지역사회로 주택이 옮겨지다 보니

10:15 지역으로 이전

10:20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 지원, 지역사회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

18:22 시설 거주자가 지역사회 거주전환 시

19:03 지역사회 거주전환 초기 집중지원

19:33 개인 지역사회 전환, 지역사회 생활단계

지역사회가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탈시설 관련 토론에서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첫 슬라이드에 밝힌 토론자의 소속이 "중앙장애인지역사회전환(통합)지원센터"인데 무엇을 지역사회로 전환하게 지원하는 센터일까요? 지역사회 전환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역사회 개념이랄 게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하여 가리키는 바도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합니다.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 거주니 지역사회 정착이니 지역사회로의 복귀니 전환이니 합니다.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 주택에 살면 지역사회에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닐까요?

시설 주택에 살면 지역사회에서 사는 게 아닐까요?

1.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시내에 있든 교외에 있든, 한집 한방에 몇 명이 살든, 공간이나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시설 주택도 그 지역의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여느 주택 가운데 공간이나 세간을 여러 가구가 얼마쯤 공유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방만 따로 쓰는 ‘기숙사형 생활주택’이 그러하고 한집 한 방에 서로 다른 가구들이 동거하는 ‘공유주택’이 그러합니다.

시설 주택의 유형도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지역사회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주사무소의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도 밖에 있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주택과 지역사회 주택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2. 시설 주택 입주자도 지역사회에서 삽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이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등을 이용하며 살아가니 지역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시설 거주와 지역사회 거주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산다, 지역사회에 산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입주자의 주거가 이미 지역사회에 있는데, 지역사회로 전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로 전환한다 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로 전환한다 함은 시설 주택은 지역사회 주택이 아니고 시설 주택 입주자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시설 주택 입주자는 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역사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일까요? 시설 주택 입주자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일까요?

지역사회라는 게, 지역사회 정착이니 지역사회 전환이니 지역사회 생활이니 하는 게, 대체 탈시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탈시설하든 하지 않든, 시설 주택에 살든 일반 주택에 살든,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탈시설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탈시설해야만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대체 왜? 탈시설을 논하면서 지역사회를 운운할까요?

지역사회와 탈시설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설의 관계, 지역사회와 시설 입주자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컨대, 지역사회는 탈시설 담론에서 쓸 용어가 아닙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가 탈시설만의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탈시설을 말하면서 지역사회를 운운하는 것은

시설과 시설 입주자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이나 오해의 산물, 또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의 발로가 아닌가요 싶습니다.

혹은 잘 모르면서 그저 따라 하는 말 같기도 하고, 혹은 알면서도 짐짓 왜곡하고 견강부회하는 억지 선동 같기도 합니다.

토론 8. 탈시설 왜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9:49 ~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라고 왜 시설에 살아야 하나?

▪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다 할지라도 시설화 된 환경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1. 슬라이드의 본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슬라이드의 제목은 “탈시설 왜 해야 하나?”인데, 본문에는 ‘UN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대규모 거주시설은 물론 소규모 그룹홈이나 가정이라 할지라도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지닌다면 자립생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1) “탈시설 왜 해야 하나?” 했으니 '이러저러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텐데 슬라이드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2) 본문의 술어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지요? 이 술어에 호응하는 주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일까요?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일까요? 그렇다면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는 시설화된 환경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 이렇게는 말이 되지 않으니 ‘탈시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본문의 주어일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본문은 “탈시설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의 제목과 본문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2. 구두 설명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놓고 구두로 하신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20년간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 탈시설을 해야 하나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든 누구든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 왜 해야 하나? 장애인이든 누구든 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는 사회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탈시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왜 탈시설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라 말씀입니까? 20년간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까?

“탈시설 왜 해야 하나?”에 대한 답변은 슬라이드로도 구두 설명으로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 주제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제라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스스로 던지신 질문 “탈시설 왜 해야 하나?”, 20년간 받아 오셨다는 질문 “왜 탈시설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토론 9. 탈시설이 이런 건가요?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17:44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사례

소득, 집, 서비스, 일자리, 낮서비스 이용하는 개인마다 다른, 각자의 삶

- 소득(서울시) : 생계급여 54만8천+장애연금 42만+주거급여 31만=월 127만8천원 / 탈시설정착금 1300만원(1회)
- 집 : SH공급 임대주택
-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국비+시비(탈시설추가 2년 120시간+중증 200시간+최중증 24시간 지원)
- 일자리(서울시)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최중증도 참여), 일 4시간, 월 83만원
- 낮서비스 : 직업을 갖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 주간활동, 복지관 이용, 지역 문화센터, IL센터 활동 등 다양한 각자의 삶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날"을 위한 사람중심계획(PCP) 접근 방식



“저희 법인이 거주시설을 운영하다가 거주시설 중의 한 개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원주택에서는 그냥 서비스만 공급하지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가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업체일 뿐이지요.

그래서 (침실 3개, 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인) 이런 집에서 두 분께서 방을 각각 계약해서 나눠서 생활하고 계세요. 투룸짜리는 주로 혼자 사세요.”

- 1) 장애인 거주시설도 장애인 지원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입니다. 둘 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이고 둘 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주택입니다.
- 2) 기존 시설 주택에서도 집에 대한 점유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3) 기존 시설 기관도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일 뿐입니다.
- 4) 기존 시설 주택 입주자도 시설 기관과 각각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기존 시설 주택에도 1인실이 있습니다.

본질상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신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는 지원주택이라는 사회주택이고, 그곳에 지원주택센터라는 전담 복지기관이 딸려 있고 그 기관에는 센터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행정인력과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따위의 추가 인력이 있으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업무시설 겸 이용시설이 동마다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거주시설 중의 한 개소를 장애인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기존 주택 중에 한 개소를 지원주택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기존 기관 중의 하나를 지원주택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존 시설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기존 시설 기관을 지원주택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지원 기관의 이름을 바꾼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원 인력의 명칭을 센터장,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따위의 영어로 바꾼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용시설의 명칭에 '커뮤니티'라는 영어를 넣는다고 시설이라는 정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원주택이라는 사회복지주택과 지원주택센터라는 지원 기관의 결합체, 결국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주택 + 지원 기관 = 시설, 바로 그 시설입니다.

거주 공간을 활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거주시설, 바로 그 시설입니다.

탈시설 전에 살던 곳도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복지주택 곧 시설 주택이었고, 탈시설 후에 사는 지원주택이라는 곳도 전담 지원 기관이 딸린 사회복지주택 곧 시설 주택입니다.

탈시설 후의 주거도 본질상 시설 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복지주택, 곧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가 마련하여 제공하는 주택,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달려 있는 주택, 시설 주택입니다.

탈시설 전에 지원하던 기관도 시설 주택에 딸린 기관 곧 시설 기관이었고, 탈시설 후에 지원하는 지원주택센터라는 기관도 지원주택이라는 시설 주택에 딸린 기관 곧 시설 기관입니다. 탈시설 전의 지원 기관도 프리wel의 기관이었고 탈시설 후의 지원 기관도 프리wel의 기관입니다. 탈시설 전에도 프리wel이 맡아 운영 지원했고, 탈시설 후에도 프리wel이 맡아 운영 지원합니다. 탈시설 전에도 프리wel 산하 시설이었고 탈시설 후에도 프리wel 산하 시설입니다.

요컨대, 시설에서 시설로 옮긴 겁니다.

이런 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시설인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탈시설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구 시설에서 신 시설로 옮기는 것, 시설의 형태나 명칭을 바꾸는 것, 시설이라는 이름을 탈(脫)하는 것, 이런 건가요?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 이른바 탈시설로써 생긴 변화는 이런 것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것 외의 차이는 그저 사는 곳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 결과, 차별의 산물일 뿐이니 말입니다.

토론 10. 이러자고 탈시설을?

더숨99지원센터 제3회 콜로키움 [김정하 선생님 토론 영상](#) 17:44 ~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사례

소득, 집, 서비스, 일자리, 낮서비스 이용하는 개인마다 다른, 각자의 삶

- 소득(서울시) : 생계급여 54만8천+장애연금 42만+주거급여 31만=월 127만8천원 / 탈시설정착금 1300만원(1회)
- 집 : SH공급 임대주택
-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국비+시비(탈시설추가 2년 120시간+중증 200시간+최중증 24시간 지원)
- 일자리(서울시) :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최중증도 참여), 일 4시간, 월 83만원
- 낮서비스 : 직업을 갖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 주간활동, 복지관 이용, 지역 문화센터, IL센터 활동 등 다양한 각자의 삶
-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날"을 위한 사람중심계획(PCP) 접근 방식



1. 이 슬라이드에 쓰시고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지원주택을 임대받고

탈시설 정착금, 생계급여, 장애연금, 주거급여를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장애인주간센터,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서 낮서비스를 받고...

탈시설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탈시설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2. 이 슬라이드에 쓰시고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지원주택을 임대받고

탈시설 정착금, 생계급여, 장애연금, 주거급여를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장애인주간센터,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서 낮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지역사회 생활인가요? 이런 게 지역사회 통합인가요?

이런 사회를 장애인도 살 만한 사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이 불가촉천민입니까, 전염병자입니까? 약자 전용 사회서비스, 장애인 전용 복지수단으로써 따로 돕는 일이 어찌 이토록 많단 말입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고,

장애인 일자리 또는 장애인주간센터,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 가면, 지원주택센터 사회사업가는 무엇을 하는지요?

지원주택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둘레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며, 지역사회의 여느 사람들은 지원주택 입주자나 장애인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요?

입주자와 둘레 사람 사이의 관계 소통, 지역사회의 정겨운 사람살이... 이런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요?

3. 이 슬라이드에 쓰시고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 지원주택을 임대받고

탈시설 정착금, 생계급여, 장애연금, 주거급여를 받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장애인주간센터,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서 낮서비스를 받고...

이런 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것같이 사는 건가요?

1) 사람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공기는 깨끗하지요. 이 정도면 시원하고, 별도 많고,

근데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웹사이트의 때문에 걸린 표어

그래 교통은 편리하지요. 이 정도면 널찍하고, 방도 혼자 쓰고,

근데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2) 이게 어디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탈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라면 누군가는 “이게 어디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 않을까요?

발제 영상 속의 정선옥 님처럼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사는 자기 삶이 있고,
일상의 이런저런 일에 주인 노릇 하며 둘레 사람과 함께하고,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둘레 사람에게 사람 노릇 하며 산다고,

갈수록 자주하는 일,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이 많아
지고 그 수준이 높아진다고,

갈수록 둘레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풍성 다양해지고 평범해지고 자연
스러워진다고,

갈수록 더 나은 구실, 덜 예외적이고 더 평범하고 더 가치 있는 구실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더 자주 한다고,

고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슬라이드에 나열하신 모습, 구
두로 설명하신 모습은 대개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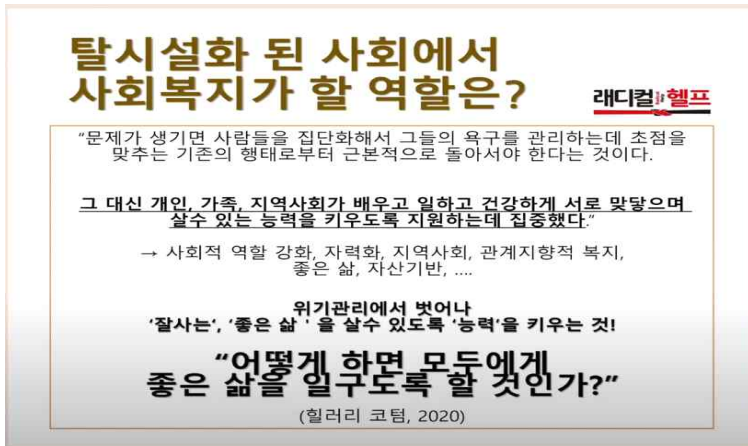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동영상에도 그렇게 사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지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척동빌라나 그
린빌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큼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사례

1. 시내에 있는 SH주택을 (1명이면 방 두 칸짜리 단독주택으로, 2명이면 방 세 칸짜리 공유주택으로) 한 채씩 주고, 생계급여 장애연금 주거급여 명목으로 매월 1인당 127만 8천 원씩 주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로써 1인당 매월 83만원씩 임금을 주고, 기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인원만큼이나 많은 코디네이터 외에 주거 코치와 활동지원사까지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자원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훨훨 날겠는데, 이런 조건이면 우리는 각 입주자의 삶과 사람살이를, 지역사회를, 이러저러하게 생동시키겠는데… 어디선가 이렇게들 수군거릴 것만 같습니다.

2. 김정하 선생님의 토론 영상 24:45~



이 슬라이드에서 소개하신 ‘래티컬 헬프’의 저자 힐러리 코텀이 비판하는 기존 행태, 래티컬 헬프의 정반대에 가까운 행태, 그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봉을 넘겨라”

사람중심(people first),
주택중심(housing first),
마을중심(community first)

마지막 슬라이드

지휘봉을 넘기는 것과 ‘사람 중심, 주택 중심, 마을 중심’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중심, 마을 중심’과는 거리가 먼 사례, 사람이 없고 마을이 없는 사례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드러나지 않고 이런 저런 사회서비스(?)만 난무하는 것 같아 민망하고 씁쓸합니다.

다만,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

“제 포지션은 권리를 확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권리를 어떻게 하면 모두가 누리게 할 것인가에 있고, 여기에 있는 실천가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어떻게 이 개개인의 삶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고민이 더 있으시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만나서 모든 장애인이 어느 공급자를 만나도 이 정도 수준이 되려고 하면 어느 공급자에 상관없이 그 권리가 국가의 권리로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여기고 고뇌하고 힘쓰는 일들이 ‘만나서’ 함께 좋은 삶, 좋은 사람살이를 이루기 바랍니다.